

‘푸른 빛의 보물, 왕실 청화백자 이야기’

도자기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으로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자기’를 가리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는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에서 구운 그릇으로 낮은 온도에서 굽는 도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백자

흰색 흙으로 빚은 그릇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 낸 도자기입니다. 조선 백자는 매우 희고 단단하며, 단아한 형태와 너그러운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을 담은 백자를 만들기 위해 수도인 한양 부근의 경기도 광주에 국영 도자기 제작소를 세웠습니다.

백자 생산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관요 체제가 확립되면서 왕실과 관청에 백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백자는 조선 시대 최고의 자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어린이가 전시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 청화백자의 표면은 왜 유리처럼 반짝이고 매끄럽게 보일까요?
- 다양한 무늬를 감상해 보고 무늬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왕실에서는 청화백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든다면 코발트 안료로 어떤 무늬를 그리고 싶나요?

이 안내서는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가 감상활동을 활용하여, 전시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전·사후 학습 영상 추천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의 도자기, 오늘에 이어지다



청화백자

청화백자는 흰색 백자 표면에 푸른색 무늬가 그려진 도자기입니다. ‘청화(靑畵)’란 푸른색으로 그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푸른색은 신비롭고 귀한 색으로 여겨졌으며, 조선 시대에 왕실과 귀족 계층에서 특히 사랑받았습니다.

코발트 안료

꽃이나 나무 등 자연에는 푸른색이 거의 없어서, 옛날 사람들은 귀한 광물인 코발트로 푸른색을 만들었습니다. 코발트 안료는 페르시아에서 발견되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예시 답안

페르시아에서 조선에 오기까지 코발트의 여정을 따라가는 활동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표지 속 청화백자에서 미로 찾기를 해 보세요!



예시 답안

① 어린이에게 청화백자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도움 자료

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가마에 구워요.

초벌구이 된 그릇 표면에
코발트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요.

그릇에 유약을 발라요.

건조 후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더 구워요.

완성



코발트 안료는 흑록색입니다.
안료에 물을 섞어 무늬를 그리고
투명한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 푸른색을
띅니다.

② 기사계첩은 왕실 행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왕실 행사에서 사용된
청화백자를 찾도록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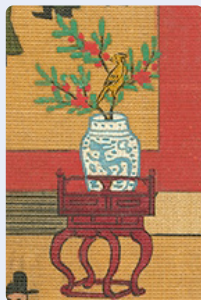
도움 자료

기사계첩

이 화첩은 1719년 70세 이상 고위관료를 위해
열린 경로잔치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으로
172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용준

왕실 행사를 대표하는 그릇으로 주로 꽃을 꽂거나
술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용준

③ 정보 무늬(QR 코드)를 참고하여
청화백자를 만들어 보세요.



코발트로 쓱쓱! 도자기를 꾸며요

푸른색을 내는 코발트 물감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졌어요.
장인들은 이 귀한 코발트로
청화백자를 만들어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백자 투각 청화 모란무늬 향아리
18세기 / 높이 26.5cm / 보물



백자 청화 모란 박쥐무늬 향아리
19세기 / 높이 15.7cm

그림으로 청화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①



초벌구이 된 도자기 표면에
코발트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요.

②



무늬를 다 그리면 도자기가
반짝이도록 유약을 발라요.

③



건조 후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더 구우면
빛나는 멋진 청화백자가 완성돼요.

왕실에서는 청화백자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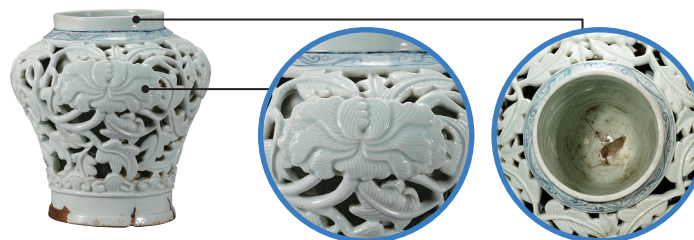
왕실 행사에서 청화백자는 술을 담거나 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는 그릇으로도 사용했어요.

왕실 그림 속에서 청화백자를 찾아 표시해 볼까요? ②



기사계첩
18세기 / 가로 36cm / 국보

어린이와 함께 청화백자를 감상해 보세요!



백자 투각 청화 모란무늬 향아리
18세기 / 높이 26.5cm / 보물

목 아래 부분에 코발트 물감으로 넝쿨무늬가 그려졌습니다.
향아리의 전면에는 투각기법으로 모란꽃 줄기와 잎이 새겨져 있습니다.

* 투각기법

: 흙이 마르기 전에 날카로운 도구로 무늬를 그린 후 구멍을 뚫는 기술입니다.

종이 공예로 만드는 나만의 청화백자



다양한 무늬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무늬를
그려 보세요.



용무늬

용은 상상의 동물로 조선 시대에 왕을
상징하는 무늬였어요. 용이 하늘을 힘차게
오르는 모습에서 힘이 느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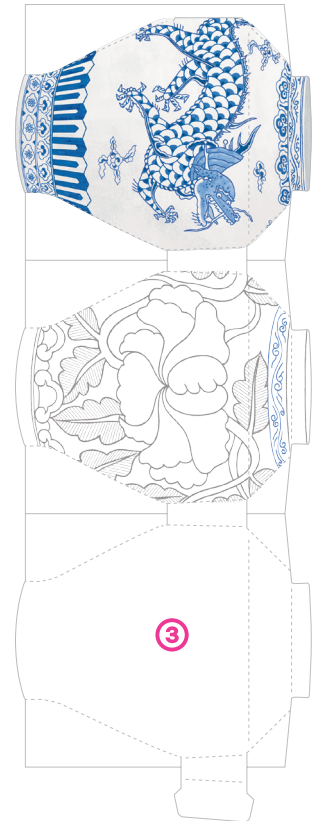
모란 넝쿨무늬

꽃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은
부귀영화를, 길게 뻗은 넝쿨은 화합과
조화를 뜻해 행복한 삶을 상징했어요.



나만의 무늬

여러분은 어떤 무늬를 그려보고 싶나요?
나만의 독창적인 무늬로 도자기를
꾸며 보세요!



백자 청화 모란 박쥐무늬 향아리
19세기 / 높이 15.7cm

모란꽃 사이로 박쥐가 날고 있습니다. 꽃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은 돈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박쥐를 뜻하는 한자 '蝠(복)'은
행복을 뜻하는 한자 '福(복)'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박쥐무늬는 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